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주요 쟁점과 연구방향

채 정 민[†]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남한 내 정착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지금이라도 이 분야의 주요 쟁점과 연구방향을 올바로 정립할 필요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 연구의 대상자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의 객관성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대한 연구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탈북청소년 연구의 대상자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연령 범위, 탈북청소년 집단의 동질성, 탈북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고,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의 객관성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정착 실태, 탈북청소년의 가족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대한 연구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삶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관점, 탈북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해외 귀국 남한청소년 연구의 참조, 탈북청소년과 남한포래 간의 관계, 탈북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견해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하며, 연구대상자의 남한생활을 무리하게 '적응'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면 등이 드러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서 심리적 해결과제는 남한 청소년과 충분히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주요어 : 탈북청소년, 문화, 심리학, 적응, 통일

[†] 교신저자 : 채정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미아동)

Tel : 02-944-5021, E-mail : minspin@hanmail.net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 12월 현재(통일부, 2016) 누적 인원 28,794명¹⁾이다. 이 중 초, 중, 고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²⁾은 약 2,475명이며,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소속 청소년은 242명이어서 초, 중, 고 연령대의 탈북청소년의 비율은 9.1% (2,717명)에 이른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이러한 비율은 그 이전 연도들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증가 추세는 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다(예, 이순형, 2011). 더욱이 이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남한청소년과 함께 가까운 장래에는 우리 사회의 주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거의 유사한 연구 주제로 하나의 학계에서도 연구가 여러 편 등장하였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학적 기제를 심리학계에서 연구한 경우가 있으면 이를 차용하여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사회학계에서도, 아동학계에서도, 체육학계에서도, 예능학계에서도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학계에서 탈북청소년의 ‘적응/부적응’, ‘심리적 적응/부적응’, ‘학교생활 적응/부적응’, ‘문화 적응/부적응’, ‘사회 적응/부적응’, ‘어려움’,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심리학적 기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심리학적 기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비심리학 전공자는 원래의 심리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심리학계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은 나타난다. 또한, 이들이 심리학적으로 비슷한 기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용어를 다른 관점과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탈북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치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확증적 연구로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 특히 실태조사식 연구가 주를 이루는 탈북청소년 연구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해 시급하게 수립되어 실천되어야 할 정책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 독일에서의 동독 청소년과의 직·간접적 비교와 참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통일 독일에서 동독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특이한 참고사항이다. 예를 들어, 통일 후 청소년 문제는 주로 서독 청소년이 아닌 동독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되었고, 이들에 대한 연구(예; 송광성, 1994)에 관심이 많았다. 송광성(1994)의 연구 결과, 동독 청소년은 서독 청소년에 비해 교육문제, 실업문제, 집단폭력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통일 후 1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동독 청소년들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가진 서독사

1) 통일부의 통계자료(2016년 7월 9일자)를 보면, 2016년 6월말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원은 29,543명인데, 탈북청소년의 비율과 시점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2015년 12월 자료에 초점을 두었다(2016년 7월 10일 방문).

2) 본고에서는 ‘탈북청소년’으로 명명하지만 이와 유사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청소년’, ‘탈북귀순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등이 있다.

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김이섭, 2004)는 연구가 있다. 또한,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동독 청소년들은 세계화 과정과 탈정치화 현상의 영향으로 극우주의와 외국인 혐오라는 일탈 행위를 했다(이영란, 2007; Förster, 2003; Lamnek, 1995 등).

한편 통일 독일에서 1990년대까지는 동독과 동독 주민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 많아서 연구가 많았는데,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2005년 시점부터는 이러한 관심이 많이 줄어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이 콜로르겐, 2013).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 청소년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동독 청소년과 서독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이 비슷한 적응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 즉, 통일된 지 20년 후에 동독 출신 청소년과 서독 출신 청소년의 건강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Lampert, 2010).

그리고 김혜은, 서봉연, 이순형(1999)은 통일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혜은 등(1999)은 통일 직후 희망찬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의 벽에서 실망을 하다가 다시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고, 이러한 변화 기제의 원인으로는 이들이 성인에 비해 과거의 잔재, 모순의 경험을 비교적 적게 하였고, 독일의 건전한 경제구조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비일관된 연구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연구의 시점 차이, 연구 방법의 차이, 실제 적응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가 아

니면 적응하지 않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가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탈북청소년의 남한 생활에 대해 보다 확실한 연구 틀을 정립하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최소한 심리학계에서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생활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개관해서 주요 쟁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두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로서의 탈북청소년의 정의, 연구의 틀로서의 탈북청소년 관련 이론, 연구 진행 시 오류와 해석 시 오류를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탈북청소년 연구의 대상자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

탈북청소년의 연령 범위

어느 학문에서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를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작업은 더 중요하고 명료해야 연구의 전집과 표집,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탈북청소년의 연구대상자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1은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설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예이다. 표 1은 탈북청소년의 재학생 수와 중도탈락률에 관한 것이다.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38%

표 1. 탈북청소년 재학생 수와 중도탈락현황

		초등	중등	고등	계
2012년도	2011년 4월 재학생 수	1,020	288	373	1,681
	중도탈락생 수(%)	27(2.6)	11(3.8)	18(4.8)	56(3.3)
2013년도	2012년 4월 재학생 수	1,204	351	437	1,992
	중도탈락생 수(%)	37(3.1)	26(7.4)	7(1.6)	70(3.5)
2014년도	2013년 4월 재학생 수	1,159	478	385	2,022
	중도탈락생 수(%)	7(0.6)	15(3.1)	29(7.5)	51(2.5)
2015년도	2014년 4월 재학생 수	1,128	684	371	2,183
	중도탈락생 수(%)	2(0.2)	20(2.9)	27(7.3)	49(2.2)

* 중도탈락율=(해당연도 중도탈락자 총수 /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출처: 통일부(2016).

라는 탈락률을 보였는데, 2008년도에 10.8%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다. 2012년 이후 점차 2%대를 유지하면서 안정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치는 탈북청소년의 연령대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연령 상한대로 보는 만24세까지가 아닌 고등학교까지만 포함시키고 있다.

탈북청소년 시기의 정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한에서³⁾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는 청소년의 시기를 학문적으로도 다양하게 규정하지만 법제상으로도 다양하게 규정된다. 즉, 『아동복지법』의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은 만18세 미만이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⁴⁾의 제2조

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의 제3조에는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학문적으로 그대로 준용할 경우 더욱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 주된 이유는 청소년의 시기를 정의할 때, 학문에 따라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사회적 측면을 중시하느냐, 이념적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탈북청소년을 정의할 때,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의 대상을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예, 김연희, 2009; 장창호 2000).

한편, 법률적으로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인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이하 모든 법률 명칭은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된다).

3) 북한이탈주민 성인과 탈북청소년을 연구하거나 실제 실천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남한’이라는 말과 ‘한국’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편의상 ‘남한’으로 통일하여 명명한다.

4) 기본적으로 법의 명칭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를

는 만14세부터 만24세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 1항에서 교육지원 대상을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2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북한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만0세에서부터 만27세까지를 말한다(박성희, 1991)는 점이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남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차이가 최대 15년이 차이가 나므로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을 동질성 있는 집단으로 다루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특히 심리학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들은 에릭슨(E. Erikson)의 성격발달이론에서 적어도 3단계가 차이가 나므로 현실적으로는 학제별로 즉, 초등학교 기간, 중학교 기간, 고등학교 기간, 대학교 기간 등의 시기로 구분하여 집단화하거나 아동기, 소년(녀)기, 청년 전기 등의 시기로 구분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탈북청소년 집단의 동질성

2016년 7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약 3,000여명의 탈북청소년을 연구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들이 가진 개개인의 이질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들 연구자들은 탈북청소년 대부분이 북한에서 가난하고 피해를 받다가, 생사를 넘나드는 힘든 탈북과정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으며, 국내에 입국해서는 정착하기 어려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여건 속에서 부적응한다고 보는 동질성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시각이다(채정민, 2003).

먼저 탈북청소년의 신체적 특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신체와 외모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Brownell & Schwartz, 2004). 탈북청소년들은 북한과 제3국에서의 수년간 영양결핍을 겪어서 만성영양결핍과 저체중을 많이 겪으며, 평균 신장 면에서도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약 12~20cm 정도 작다(권이중 등, 2008). 이러한 신장 열세는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위축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장창호, 2000). 특히 여자 탈북청소년들보다 남자 탈북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향을 더 많이 보인다(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

그리고 재북 시 탈북청소년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도 중요하다. 탈북청소년 중 일부는 북한에서 출생부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일부를 보낸 경험이 있다. 이 경험 중에는 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에 맞게 사회화 된 것이 있다. 이 사회화는 제1단계는 영·유아기 때 탁아소와 유치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제2단계는 아동기 때 인민학교와 소년단에서 이루어지며, 제3단계는 초기 사춘기 때 학교와 사로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제4단계는 후기 사춘기 때 대학교와 사로청단계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이원봉, 1996). 이원봉(1996)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북한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이들의 특징은 첫째, 집단주의, 둘째, 가부장주의, 셋째, 권위주의와 의존성, 넷째, 배타주의,

다섯째, 수동성, 여섯째, 몰개성화, 일곱째, 가족적 온정주의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탈북청소년들의 진술이 있다. 이원봉(1996)은 이러한 변화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는데, 첫째, 한국문화 접촉, 둘째, 자본주의 생활양식 수용, 셋째, 범죄행위 증가, 넷째, 자유분방한 음악 선호, 다섯째, 혁명성 약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사례는 아마도 탈북청소년에게서는 더욱 뚜렷한 특징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탈북의 자발성 측면에서 보면, 탈북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탈북한 경우도 있음이 진은영, 강명진, 엄태완(2013)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이 아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향규(2014)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청소년 중에는 이들의 부모가 북한에서부터 자녀들이 북한보다 더 넓은 세계에 가서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중국어를 과외로 공부시켜 중국으로 보내고,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나타났다.

또한, 탈북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모두 국내 입국 전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 탈북청소년과 외상 경험이 있는 탈북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성장 체험에 대한 연구(예; 윤지혜, 오영림, 2010)가 진행되어 이들은 남한에서 ‘어린 아이의 몸, 혼란스러운 몸, 수용하는 몸, 어른이 되어가는 몸’으로 7년 이상 살아왔음이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남한 사회에서 과거의 아픔을 이기고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오기까지 제3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다양하고 긴 편인데, 이들 중 50%는 최소 4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고, 5년 이상인 경우도 20%이었다(권이중, 이상오, 김용구, 2008). 장기체류의 경우는 학력결손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즉, 탈북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공식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력결손 비율은 탈북청소년 입국자 중 약 90%에 이르고, 이들의 남한 동년배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단지 38%만이 재학하고 있다(박윤숙, 윤인진, 2007).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향후 한국 삶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권이중 등, 2008). 하지만 윤인진(2000)은 탈북청소년이 오히려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신기술, 생활양식, 경제체계, 가치체계 등을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써 향후 남한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했다. 따라서 제3국 체류 경험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개개인별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탈북청소년 집단의 동질성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북 거주 경험과 여건, 탈북 과정에서 경험, 남한 입국 후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이들을 분석해 보면, 북한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탈북청소년도 있고, 부유하게 살았던 경우도 있다.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힘든 경험을 한 경우도 있고, 전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동기 측면에서도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족단위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도 있으며, 남한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단독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도 있다(채정민, 김현아, 2011).

따라서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동질성을 가진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질성 정도에 따라 남한에서 정착해나가는 행태도 연구하여야 한다.

탈북청소년의 성별 차이

탈북청소년들 중 성별 요인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면, 결론이 일치되지 않는다. 즉, 금명자, 김동민,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정체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박윤숙(2006)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적응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박윤숙(2006)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에 비해 적응의 어려움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서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는 성별의 차이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기도 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고(김은정, 2009), 중학교 시기로 이행하면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성향이 많아져서 적응 수준이 낮아진다(Hirsh & Rapkin, 1987). 따라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의

객관성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

탈북청소년의 정착 실태

어느 한 집단의 심리학적 특징을 연구할 때, 그 집단만을 연구대상자로 하고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들의 특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 집단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해서 어느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이들이 과연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경우, 세계 각국의 동일한 연령대의 노인 집단에 대한 생활만족도 측정치를 확보하여 비교하면 한국 노인 집단이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성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구 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성인 연구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허은영과 강혜영(2007)은 진로성숙도에 대해 진로자기효능감이 탈북청소년에게서보다 남한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설명량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중단 연구(한만길, 2013)에서는 다행히도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는 연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집단 설정의 연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연구에서 이 연구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가족 영향

일반적인 인식처럼 탈북 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들을 중심으로 가족 결속력을 높이고 적응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이 자녀들이 새로운 문화에 빨리 적응함으로써 느리게 적응하는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진미정, 이순형, 2007). 그리고 Goldberg (1980)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주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자긍심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고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그룹홈에 거주하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심리적 탄력성을 더 갖게 되고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김형태, 2011). 그룹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는 대안의 가정 기능, 둘째는 대안의 복지시설 기능, 셋째는 치료공간 기능(강기정, 정은미, 2003)을 하므로 이 그룹홈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이 부모 등이 가족이 없다고 해서 꼭 힘들게만 살아가는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부모의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만길 (2012)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학력 부족, 남한의 교육 제도와 내용 그리고 학습풍토에 익숙치 못하고, 친구들과 사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는 대체로 저학력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는 아동기 때부터 부모와 매우 밀착된 모습을 보이다가 8세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와 동료(친구)와의 관계 비율이 4:1 정도이었다가 15세 정도에 이르면 거의 동료와의 관계 비율이 100%를 차지하게 된다(권이중, 2009 참고). 이러한 점에

서 보면 탈북청소년에게 부모와 함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가족의 지지가 부정적일 때라도 가족의 지지나 부모와의 유대관계 중 한 가지만이라도 긍정적이면 심리적응을 잘 하고 있다(김형태, 2008).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탈북청소년 중에서 부모의 존재 혹은 동거유무 효과는 좀 더 치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대한 연구 관련 쟁점과 연구방향

탈북청소년의 삶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관점

탈북청소년의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 어떠한 시각에서 보는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즉, 이들에게 무리하게 '적응(adaptation)'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를 고찰해야 한다. 이 경우 이들이 남한 내에서 남한식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일방적 관점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 청소년들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해서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점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청소년들이 한 인간으로서 가진 발달적 진행과정과 남한이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특정한 짧은 시기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스펙트럼 즉, 종단적 연구 방법과 횡단적 연구 방법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들과 관련된 연구가 정책화 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이 고려해

야 할 점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측면을 학계에서나 정부 기관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응/부적응’, ‘심리적 적응/부적응’, ‘학교생활 적응/부적응’, ‘문화 적응/부적응’, ‘사회 적응/부적응’, ‘어려움’, ‘문제’ 등의 용어와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청소년의 초기 적응 문제는 주로, 학업적 측면, 진로적 측면,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다뤄진다. 학업적 측면에서는 학업의 결손과 기초학력부족이, 진로적 측면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이, 심리적 측면에서는 기대수준과 현실 간의 격차가 심한 것이 핵심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들의 심리적 측면을 적응이라는 측면만으로 혹은 이것에서 파생된 어려움이나 문제로만 본다면 자칫 이들만이 문제가 많고 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만 비춰질 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의 시선에서만 다루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적응을 정의하는 경우가 다양한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에 의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의(Germain & Gitterman, 1996)를 따라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예; 이영선, 이동훈, 2009).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이 남한 생활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내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이 나이를 먹어가고 학제가 바뀌면서 겪게 되는 자연환경, 사회환경 등에

탈북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한청소년도 동일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적응 혹은 부적응으로 보는 시각은 대부분 부적응은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부적응이 아주 특정 시점에서만 나타나거나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면 이러한 시각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Garnezy(1994)와 같은 학자들이 취하는 발달단계적 관점에서는 적응을 특정 시점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일정한 경과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관점을 적용하면 특정 시점에서만 나타나거나 성장통과 같은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n Youth Panel Survey)를 통해서 밝혀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제를 변경하여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이희정과 조운주(2010)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2004년(초등학교 4학년 패널)부터 2008년(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까지의 종단 초등패널데이터를 토대로 이 4년 동안 학교적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는데,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변화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이었다.

더욱이 다른 문화로 이주하여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Bhawuk과 Brislin(1992)은 적어도 2년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2년이 지나기 전에 조사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 전체

혹은 다수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보인다고 해서 선불리 부적응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정체감 발달 단계로 파악한 금명자 등(2003)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U자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Atkinson, Mottson, 그리고 Sue (1998)의 소수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MID)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원 시절을 포함한 보호기간 4개월 동안은 동화 유형을 보이고, 4개월 이후 1년 동안은 분리 유형을 보이며, 1년에서 2년에서는 주변화 유형을 보이고, 그리고 2년 이후에서는 통합 유형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성인들은 자신들을 다문화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의 다문화관점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예; 문희정, 2012; 장문강, 2008).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남한에서의 적응이라기보다는 남한 생활 양태라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유형화하여 조명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다가 아주 최근에 극히 적은 수의 연구에서만 나타났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성인에 대해서는 채정민(2003)이 이러한 시도를 했었고,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김형태(2010)는 기존 연구들에서 북한이탈주민 성인을 Berry의 문화적응모형을 토대로 연구한 것에 착안하여 이 모형을 탈북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유형적 접근을 취했다. 그 결과 통합형과 동화형 탈북청소년이 주변형과 분리형 탈북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심리적 적응지표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기서 심

리적 적응지표는 자존감, 또래관계, 부모유대, 사회적 지지였고, 성적과 자존감, 또래관계와 부모유대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 원 문화에 대한 적응 상태에서 타 문화로 온 경우이므로 이 모형 적용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지만 탈북청소년인 경우에는 원 문화에 대한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아예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 모형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해외 귀국 남한청소년 연구의 참조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독특하다는 연구가 많고, 그래서 이들의 남한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들과 처지가 입국 후 삶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자가 바로 귀국 남한청소년이다. 정재옥과 주은선(2003)은 해외에 체류했다 한국으로 귀국한 중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가에 대해 질적 분석을 하여 3개 영역과 9개의 주제를 추출했다. 친구 영역에서는 적응에 도움을 주는 친구가 한 명 이상 있다는 주제1, 친구와의 공감대를 위해서는 문화적인 이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제2,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진술한 친구를 원했다는 주제3이 포함되었고, 학업 영역에서는 외국과의 학력 수준차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주제4, 시험(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주제5, 흥미로운 수업을 경험하고 싶다는 주제6이 포함되었으며, 교사 영역

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되 드러나지 않는 나름대로의 관심과 배려를 원한다는 주제7,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교사를 원한다는 주제8, 체벌과 수직적인 지시 관계의 권위적인 교사의 태도를 혐오한다는 주제9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선과 이동훈(2009)이 해외생활을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한 만 12~17세의 청소년 중 귀국 후 부적응을 경험하는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이들이 국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낼 것을 요구 받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점들로 보면 탈북청소년과 해외 귀국 남한청소년이 남한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문제를 연구할 때 이들의 독특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들이 남한 사회에 새로이 편입되면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과 남한또래 간의 관계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에는 남한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김정화(2012)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또래집단 학생들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수용도에는 북한관련 지식의 정도가 영향을 주었지만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호감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을 접촉한 것을 양적 수준별로 보면 탈북청소년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질적 수준별로 보면 고정관념과 호감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한 또래집단의 행동에는 탈북청소년의 호감도가 제일 중요

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정관념, 북한관련 지식이 중요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남한청소년에 대해 좀 더 조명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남한 청소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정순미, 2010)가 이루어졌다. 정순미(2010)는 이를 위해 3단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는데, 제1단계는 남한 청소년이 탈북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2단계는 탈북청소년의 남한 생활적응 상태를 인식하고, 제3단계는 남한 청소년이 탈북청소년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멘토링을 하는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정

먼저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관점에서 고찰해 보자. 문화 간 이주를 할 경우 젊을수록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더 용이하다는 관점이 서구(Meredith, Wenger, Liu, & Harada 2000)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시되었다(이소래, 1997). 하지만 이에 대해 연령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 간에 상관이 없다는 주장(금명자 등 2003; 박윤숙, 2006)도 있다. 더 나아가서 젊을수록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김형태, 2004).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과 여러 발달 과업을 가지는 10대의 경우 기본적인 발달과업뿐만 아니라 이주 후 삶의 문제가 전혀 없거나 적어야 하는 과업을 가지는 2중 과업을 가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청소년들의 경우에 남한에서 적응하는 데는 연령이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엄진섭, 서승원, 홍창형, 2005). 즉, 남한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연령이 높을수

록 유리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은 경제적 측면과 학업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윤인진, 2000), 그 어려움은 남한의 빈곤 청소년에 비해서도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윤숙, 윤인진, 2007)고 보고되었다.

다음은 학교적응 관점에서 고찰해 보자. 우선 남한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살펴보자.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Spencer(1999)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특성 및 요구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학교에서의 순응이라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곽수란, 2006).

이러한 정의들의 공통점을 토대로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냐를 여러 가지 기준과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경용과 송종원(2012)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4패널 제1차년도 자료에 대해 군집분석을 하여 부적응 심각 유형, 부적응 유형, 미미한 적응 유형, 적응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적응 유형에 유의미한 변수로서 성별(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응), 부모학력(고학력인 경우 더 적응), 가족구성(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이 더 적응), 자아탄력성(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더 적응), 부모감독(부모감독이 높으면 더 적응), 부모애정(부모애정이 많으면 더 적응), 휴일 또래놀이시간(휴일 또래놀이시간 긴 경우 더 적응), 지역사회 인식(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 인식한 경우가 더 적응)을 확인

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탈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안학교생 전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 공부'이고 그 다음은 '진로문제'이었으며, 자신이 탈북청소년임을 학교에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며(61.9%), 영어, 수학, 사회와 역사 순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 수준 또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조사를 했는데, 이들은 자녀들이 대학교 이상 졸업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매우 높았고(84.1%),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의논 대상이 없다는 18.0%를 제외하고, 의논 대상은 주로 가족, 교사, 가까운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결국은 학업 중도 포기 혹은 탈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적응 혹은 부적응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로 해야 한다는 시각(예, 최보영, 김현아, 최연우, 2013)이 있기 때문에 이 학업 중도탈락에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 중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를 기존의 연구들(길은배, 문성호, 2003; 박윤숙 등 2007; 배임호, 양영은, 2010 등)을 중심으로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 측면에서는 탈북과정에서 지연된 학령기 때문에 동급생 대비 고연령인 점과 학력 부족, 사회생활 측면에서는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경제생활 측면에서는 생계책임 등이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한국에서 적응하

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 기반이 있어야 이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되고(예; 김형태, 2004), 안녕과 건강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박윤숙 등, 2007).

탈북청소년 중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질적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실태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남한에서 대학 진학 준비를 할 때 남한 교육 수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대학 진학을 통해 남한 정착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이혜경, 2003), 남한에서 학력 중시 풍토가 많고 학연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며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경우(조영아, 전우택, 2004)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학업과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타인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조영아 등, 2004).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요소들은 모두 망라해서 모형을 구축하고, 여기에 연구자들의 심리학적 상상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생활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했고, 이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아직까지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립되어야 한 관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향후 좀 더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먼저 탈북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구조적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른 점에서 문제가 발생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한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으로는, 탈북청소년 집단의 동질성 문제인데, 얼핏 보면 이들은 모두 비슷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을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거나 이들의 이질성 정도에 따라 남한에서 정착해나가는 행태를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성별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성인의 경우에 성별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이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기존에 많이 제기되었지만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성별의 차이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정착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횡단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일정 연령대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종단연구를 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이 중단연구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이 많이 투여해야 하므로 연구자 개인별 노력보다는 정부기구나 연구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생활에는 이들의 부모의 존재 혹은 동거유무 효과는 좀 더 치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에도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으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대한 연구의 관점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 성인에 대한 연구 관점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탈북청소년에게 적용하고, 특히 Berry의 문화 적응모형과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을 한 이후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현재 남한 내에는 탈북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착 경향을 보이는 귀국 남한청소년 집단도 있으므로 이들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탈북청소년의 독특성과 국내 이주 정착 청소년의 보편성을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인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탈북청소년도 남한의 주류 청소년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순미(2010)가 주장한 바대로 이들 집단 간의 양측 집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간의 밀도 있는 성공적인 상호작용 상황을 충분히 염두 해 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남한 내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거의 모두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요소들은 기존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심리학적 연구 상상력을 발휘하여 연구자들이 추가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심리학적 연구를 하기 위한 측정도구 측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측정도구 측면인데, 탈북청소년 대상 척도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기 드물게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적응유연성 척도(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가 최근에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강인성, 친밀감, 목표의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척도가 개발되기도 했다(김희경, 신현균, 2013). 이러한 척도개발이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척도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Wang과 Burris(1994)에 의해 1992년에 개발된 포토보이스(PhotoVoice)⁵⁾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측정도구와 연구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북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과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허은영, 강혜영, 2010)이 있었다. 특히 허은영 등(2010)의 프로그램은 '남북한 직업세계 비교 및 직업의 의미', '진로정보 탐색 방법 및 미래 직업 세계 안내', '진로 관련 개인 특성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및 목표의 실현가능성 평가', '장애물 대처 방법 및 장

5) 사진과 자신의 경험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점 나누기', '세부 계획 수립'으로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좀 더 현장적용력을 높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했고(노용구, 2012),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놀이와 미술매체의 통합적 접근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예, 김지현, 2004). 그런데,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과 같은 개입 방안이 성인과 달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이들에게만 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예,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최보영, 김현아, 최연우, 2013). 최명선 등(2006)은 또한, 학교를 포함한 지역 단체와의 연계 및 매체를 활용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보영 등(2013)은 탈북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이들이 주로 보이는 '눈치를 많이 본다',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보인다',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워 한다'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이 분야의 연구들이 축적될 때마다 연구 결과의 일치 여부를 개관하면서 연구 방법의 개선과 연구 방향의 수정과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이 있어야 탈북청소년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우리사회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메타분석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구 결과를 보다 더 세련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강기정, 정은미 (2003). 그룹홈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119-132.
- 권이중 (2009). 학교 중도 탈락 학생의 진로지도 방향. *21세기 청소년포럼*, 49, 9-34.
- 권이중, 이상오, 김용구 (2008).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통일부·(사)한국청소년연합 연구보고서.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 1-26.
- 금명자, 김동민,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 (200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길은배 (2004).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9-22.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03-R 11, 1-262.
- 김경화 (2012). 중학생의 새터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2), 89-111.
- 김연희 (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191-215.
- 김은정 (2009). 초등학생 학습양식 및 성별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학교 적응력 분석. *공주교대논집*, 46(1), 37-52.
- 김이섭 (2004). 통일독일의 현주소: 교육과 청소년, 언론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7, 379-398.
- 김지현 (2004). 탈북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심

- 리치로 Program 사례연구: 놀이와 미술매체의 통합적 접근. 아동가족치료연구, 3, 163-178.
- 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25-46.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형태 (2008).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49-73.
- 김형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9), 27-59.
- 김형태 (2011). 그룹홈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 그리고 심리, 사회적응의 중단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37-164.
- 김혜은, 서봉연, 이순형 (1999).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20(2), 279-297.
- 김희경, 신현균 (2013).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21-541.
- 노용구 (2012).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1), 603-611.
- 라이 콜로르젠 (2013). 독일 통일 및 동독연구의 담론들: 20년 후의 비판적 회고. 통일과 평화, 5(1), 193-219.
- 문희정 (2012). 다문화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2), 145-166.
- 박성희 (1991). 북한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4-138.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배임호, 양영은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183-211.
- 손기웅 (2010). 독일통일 20 년의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17, 1-16.
- 송광성 (1994).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 청소년학연구, 2(1), 173-189.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윤지혜, 오영립 (2010).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성장(PTG) 체험연구-탈북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12), 49-82.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형 (2011).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한민족 아동 놀이와 놀이 노래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17(1), 155-172.
-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23(2), 123-159.

- 이영선, 이동훈 (2009).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783-1804.
- 이원봉 (1996). 북한 청소년생활의 심층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05-116.
-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89-102.
- 이향규 (2014). 탈북청소년의 물리적 경계경험과 공간에 대한 기억. *북한연구학회 학술평표논문집*, 201-232.
- 이혜경 (200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 조운주 (2010).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장문강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195-234.
-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엄진섭, 서승원, 홍창형 (2005). 의식과 생활만족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440-466).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정순미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남한 청소년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22, 301-319.
- 정재옥, 주은선 (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질적 분석을 통한 귀국 중학생들의 경험 파악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29-351.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진미정, 이순형 (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5), 63-74.
- 진은영, 강명진, 엄태완 (2013).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연구: 무기력에서 희망으로의 거듭남. *청소년문화포럼*, 34, 121-152.
-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탈북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9(3), 23-34.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김현아 (2011).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과 진로인식 연구: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학회 학술대회 발표*.
- 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6(2), 277-291.
- 최보영, 김현아, 최연우 (2013). 탈북청소년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탈북청소년 상담 개입 방안. *청소년상담연구*, 21(2), 497-525.
-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2016년 7월 1일 방문).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검색일: 2015.9.01).
-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5년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2016년 7월 1일 방문).

- 한만길 (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과제. *기독교와 통일*, 6, 67-77.
- 한만길 (2013).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 (IV)(RR2013-0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허은영, 강혜영 (2007).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비교. *상담학연구*, 8(4), 1485-1500.
- 허은영, 강혜영 (2010).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23(4), 39-55.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5th ed.). Boston: McGraw-Hill.
- Bhawuk, D. P., & Brislin, R. (1992).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413-436.
- Förster, P. (2003). Junge Ostdeutsche heute: doppelt enttäusch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 15, 6-17.
- Garnezy, N. (1994).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1-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main, C. B., & Gitterman, A. (1996).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Advances in theory & practice* (2nd e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ldberg, E. R. (1980). Relocation and the family: A crisi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Uprooting and development* (pp. 211-231). Springer US.
- Hirsch, B. J., & Rapkin, B. D. (1987).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school life, and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58(5), 1235-1243.
- Lamnek, S. (1995). Jugend und Gewalt—A Never Ending Story. In *Jugend und Gewalt* (pp. 11-24).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Lampert, T. (2010). *20 Years of German Unity: Are there still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 as regards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Meredith, L. S., Wenger, N., Liu, H., & Harada, N. (2000).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1), 103-113.
- Schwartz, M. B., & Brownell, K. D. (2004). Obesity and body image. *Body image*, 1(1), 43-56.
-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43-57.
- Wang, C., & Burris, M. A. (1994). Empowerment through photo 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 Behavior*, 21(2), 171-186.

논문 투고일 : 2016. 07. 20
1 차 심사일 : 2016. 07. 25
게재 확정일 : 2016. 11. 01

Key Issues and Research Direction of the Psychological Researches for the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Jung-Min Chae

Seoul Cyber University

As North Korean Youths are getting bigger, many psychologists have focused on them academically. But earlier studies showed many mistakes which have to be solved quickly. So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set as the main problems as follows: Key issues and research direction for the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s research participants, issues and research direction for the objectivity of the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states, issues and research direction for the Young North Korea defectors' life in South Korea. Result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enough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no consistency among the research results, and second, most of the researchers have no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subjects' psychological states, and finally, most of the researchers have a 'adaptation model' strongly. So we have to have a more proper and objective stance for the Young North Korea defectors' life in Sou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n Youth, Culture, Psychology, Adaptation, Reunification